

# 북한의 지명관리 정책과 연구 동향 분석\*

김 기 혁\*\*

## Progress of Management Policy and Research of Place Names in North Korea\*

Kim, Kihyuk\*\*

**요약**: 1945년 분단 이후 북한은 지명을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로서 이용하였고, 언어 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1952년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시·군·리 지명을 언어 관리 차원에서 바꾸었고, 1966년 지명조사 사업의 완료 이후 주체사상을 반영하면서 지명을 관리하였다. 지명의 전부 요소에 고유어와 인명을 이용한 지명이 적지 않게 등장하였고, 후부 요소도 남한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지명 관리의 일환으로 사전을 적극적으로 편찬하였다. 지명 연구는 사회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연구 주제는 1990년대 이전에는 사회주의 지명을 찬양하는 글들이 많아 발표되나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 내에서 지명 특성을 소개하는 글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 시기에는 지명으로 학위를 취득한 학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전의 연구 내용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어**: 사회주의, 이상화 지명, 문화어, 김일성, 땅이름

**Abstract**: Place names in North Korea has been regarded as an effective instrument of revolution since division of territory(1945) and as typical case which political ideology affected the place names. Especially in North Korea, self-reliance ideology(Juche Idea) and idolization of Kim Il Sung influenced the place names. With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reform in 1952, names of district and village were changed on national scale. National survey of place names were proceeded in 1964~1966 with direct support of Kim, Il-sung. After this survey, North Korea made alteration of place names in terms of idolization of Kim Il Sung family as well as socialist revolution. Encyclopedia of place names were widely published. Almost linguist were forced to produce writing and papers for the praise of the legitimacy of new place names. But it should be attended that research trend are slowly changed since 2000s. Research for idolization of Kim Il Sung has become a little importance.

**Key Words**: socialist, idolization and place names, cultured language(standard language), Kim Il-sung, toponym

### 1. 들어가면서

언어를 이용하여 장소와 세계의 의미를 재현한 지명은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과는 달리 위치 속성이 고정되어 장소를 다른 곳과 구별하게 한다. 지명은 사회 관계망(social network)속에서 형성되며 장소에 대한 지식(knowledge)을 형성하는 도구이다. 인간은 지명을 통해 외적 세계를 실존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공간을 표상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사람들은 지표(地標, landmark), 결절(node), 경로(path), 지구(district)와 경계(edge)에 명명된 지명을 통해 일상에서 장소를 이해한다. 동시에 지명 속에 담긴 의미는 주민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

면서 개인의 이념 세계 형성을 지배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치 이념이 반영된 지명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지명이 지니는 이와 같은 기능 때문이다.

북한의 지명 레이어(layer)는 남한과 같이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속성을 보이고 있다. 산지가 많은 지리적 환경 속에서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언어를 바탕으로 지명이 형성되었고, 통일신라 시기와 고려 시대는 만주어와 여진족어의 영향을 받았다. 조선시대 이후에는 평안도와 함경도의 지역 방언이 지명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남·북한 지명이 모두 일본식 한자로 표기되는 불행한 역사를 공유하였다.

1945년 분단 이후 북한은 지명을 사회주의 혁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khkim@pusan.ac.kr)

명의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명 관리는 언어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1952년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계기로 시·군·리 등의 지명을 바꾸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는 주체사상이 반영된 사회주의 지명<sup>1)</sup>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지명은 남한과는 다른 속성을 갖게 되었다.

북한 지명 정보관련 자료는 최근 공개되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가능하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세도(1:250,000), 수치지도(1:25,000)와 웹페이지에는 남한에서 구축된 지명 정보가 소개되어 있다. 북한에서 구축하여 관리하는 지명은 남·북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편찬된 『조선향토대백과』(2004)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웹으로도 서비스되고 있다.

북한 지명에 대한 남한 학계의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국어학계에서는 김영배(1994)가 「북한의 지명」 제하의 논문을 통해 1952년 행정 지명의 개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지리학에서는 이영택(1994)이 북한의 지명 변화의 유형과 행정지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최석주(2003)는 「북한의 지명」 제하로 북한의 지리교과서에 수록된 지명을 분석하였으며 이영희(2006a, 2006b)는 「북한 개성특급시 역사 문화지명의 유래와 특성」 제하로 지명 유래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이민부·전중환(2005)은 북한의 ‘추가령’ 지명에 대해 지형학 및 역사지리적 해석을 시도한 바 있다. 단행본으로 양태진(2008)은 『달라진 북한땅 이름 이야기』에서 북한의 주요 지명들의 유래와 변화 내용을 다루고 행정구역 개편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중앙일보사(1991)는 북한 지명에 대해 시군별로 정리한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북한의 지리와 지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남한 학계에서의 연구는 대부분 지명 변화에 대한 소개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 분단 이후 북한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지명이 적지 않으며 이들은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볼 때, 지명 연구에서 정책적인 측면과 북한 사회에서 출간되는 연구물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분단 이후 북한의 지명 정책과 관리 내용을 살펴보고, 북한 학계의 지명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주의 체

제 안에서 정치 이념의 변화에 따라 지명이 어떻게 변하고 해석되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남·북한 통합에 필요한 국토의 동질화 사업에는 지명 정책이 한 축을 차지한다. 이 연구 결과는 미래 통일에 대비한 지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자료는 북한에서 발행된 문헌을 기초로 하였다. 지명과 언어 정책은 『김일성저작집』 등 북한 기관 발행 문헌을 참조하였다. 지명 사전류로는 『고장이름사전』(2002, 전10권), 『조선지명편람』(2002년, 전10권), 『조선향토대백과』(2004, 전20권)를 이용하였다. 연구 동향은 단행본으로 발행된 『조선지명학』, 『조선지명변천에 대한 역사문헌학적 연구』, 『조선지명연구』과 『조선어명칭론연구』 등의 지명 이론서와 『문화어학습』, 『민족문화유산』, 『역사과학』,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등의 논문집에 수록된 글과 논문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서술은 인명을 제외한 지명, 개념용어 등은 남한 표준 문법을 따랐다. 단 북한 원전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변형없이 그대로 전재하였다.

## 2. 1960년대 이후 북한의 언어와 지명 정책

분단 이후인 1946년 9월 북한은 「평양특별시외의 구제도 실시에 관한 결정서」를 계기로 일제 지명을 정비하였으며, 1947년에 ‘조선어문연구회’를 설립하여 지명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1952년 12월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북반부 지역에서의 행정체계 중면을 폐지함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였다. 이에 따라 군지명은 종래 91개에서 168개로 늘어난 반면, 10,120개였던 리 지명은 3,659개로 축소되었다. 노동자구는 41곳이 신설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군과 노동자구·리의 명명 방법을 언어의 어휘 정리의 영역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명 변화에 큰 전환점이 된 것으로 북한학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박명훈, 2005b).

1960년대는 주체사상이 통치 이념으로 등장하는 시기로서 언어와 지명 정책은 큰 변화를 겪었다<sup>2)</sup>. 1966년 이후 ‘문화어 운동’(남한의 표준어)이 전개되고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에서 지명을 관리

하였다. 이때부터 주체사상이 지명의 형성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 1) 언어 정책

북한에서 지금과 같은 언어 정책이 구체화된 시기는 1964년부터이다. 그해 1월 3일 김일성은 언어학자들을 모아놓고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제하로 간담회 형식으로 언어정책 전반에 대한 교시를 하였다. 『김일성저작집』(1964)에 수록된 교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어떤 사람들은 문자개혁을 하자고 하였으나 우리는 그것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 어떤 사람들은 언어문제를 민족문제와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니다. ... 조선 인민은 핏줄과 언어를 같이하는 하나의 민족입니다(18권, 14쪽).
- 오늘도 우리의 말과 글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힘있는 무기로 되고 있습니다(18권, 18쪽).
- 사상적으로 동원하고 사회적 운동을 벌려 모든 사람들이 우리말을 올바르게 쓰는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힘든 한자어를 쓰지 말고 군중이 알 수 있는 쉬운 우리말을 써야 한다는 것을 당적으로 널리 선전해야 하겠습니다(18권 20쪽).
-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 온 세계가 다 공산주의로 되려면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시기까지는 민족적인 것을 살려야 합니다. ... 한자문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와 관련시켜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이 언제 될는지 누구도 짚어서 말할 수는 없으나 ... 지금 남조선사람들이 우리 글자와 함께 한자를 계속 쓰고 있는 이상 우리가 한자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18권 21쪽).

제일 먼저 인용된 문구는 한글의 문자개혁과 관련된 것이다. 이 운동은 원래 김일성의 정적(政敵)이었던 김두봉(金斗奉, 1889~1960)<sup>3)</sup>이 주도한 것이다. 그는 국어학자 주시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학자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가 만든 『조선어소사전』(1956)은 조선어 낱말을 마르크스-레닌

주의에 입각하여 주석함으로써 남북 사건의 뜻풀이에 정치이념이 개입되는 최초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김민수, 2005). 1958년 김두봉이 8월 종파사건으로 숙청되면서, 그가 주도한 문자개혁안은 비판받게 되었다. 김일성은 이 교시를 통해 ‘① 언어문제를 민족문제와 결부시키지 않았으며 ② 과학과 문화 발전에 지장을 주고 ③ 문자 발전의 국제적인 방향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언어 정책을 교시한 것이다.

둘째 문구는 언어를 혁명 수단으로 보아 사회를 개조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도구로 명시한 것으로 김일성의 혁명 도구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셋째 문구는 언어의 비계급성을 담고 있다. 넷째 문구에서 고유어를 쓰되 한자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은 공산주의 혁명에서 국제어 합류 이전의 단계인 민족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1964년에 교시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스탈린의 ① 언어도구관 ② 언어의 비계급성 ③ 국제어 합류설과 거의 일치한다(김민수, 1995).

이 교시에서 김일성은 이 세 가지 외에 ‘주체적 언어 사상’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언어에 있어서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살리자는 것으로 이것은 민족어안에 들어와 있는 사대주의적 요소를 철저히 척결하여 언어의 자주성을 살리며 나아가 대중의 창조적 지혜를 발휘하여 민족어를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 2) 지명 정책

북한에서 지명과 관련한 정책이 처음 언급되는 것은 1964년 김일성의 「백과사전과 지도의 편찬 방향에 대하여」 제하의 교시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계지도를 만드는데서 지명은 원래 이름대로 넣어야 합니다. 이미 오래동안 다른 이름을 써서 굳어진 것은 원래 이름만 쓰면 잘 모를 수 있으므로 괄호안에다 지난날에 쓰던 이름을 넣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원래 이름을 쓰는 데서 나라 이름이나 그밖에 도시 이름을 비롯한 지명은 다 그 나라에서 부르

는 대로 적어야 합니다(18권, 287쪽).

이 내용은 세계 지도 제작에서 외국 지명의 표기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후에 외국 지명의 로마자 표기 방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김일성의 교시에서 지명 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는 것은 1966년에 행해진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 나갈데 대하여」 제하의 교시이다. 『김일성저작집』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유어를 적극 찾아 고장이름도 우리말로 부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말로 부르는 것이 한자말로 부르는 것보다 더 고상합니다. 가령 ‘붉은바위’를 ‘적암’이라는 식으로 한자말로 바꾸어놓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합니다. 지금 고장이름을 한자말과 고유어의 두가지로 부르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돌다리골’을 ‘석교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실례입니다. 고유어로 된 고장이름들을 다 조사하여 될수록 한자말을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20권, 229쪽).
- 우리가 이미 사회과학원에 고장이름을 조사해 보라고 하였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회과학원의 힘만으로는 그 사업을 다 하기 벅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각에서 이 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나 명령을 하나 내려 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고유어로 된 고장이름을 다 조사하면 그대로 쓰게 하고 지도를 다시 찍으면 됩니다. 행정구역이름도 내각결정으로 고치게 하면 될것입니다.(20권, 229쪽)

첫째 인용 문구는 북한의 지명 관련 글에서 서두에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다. 1964년 교시 중 가능한 한 고유어를 사용하라는 내용이 지명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이후 북한 지명의 개칭에서 기본 지침으로 이용되고 있다. 둘째 인용 문구는 북한에서 행해진 지명 조사에 관련된 내용이다. 주체는 사회과학원이며, 내각에서 지원하며, 행정 지명의 변경은 내각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담고 있다. 남한에서 1961년 실시된 것보다 3년 늦은 것이나 불과 1년 반만에 전국 약 50만개의 지명 조사를 완

성하였다. 북한 자료에 언급된 이 조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1964년 4월 21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제29호를 통해 고장이름 특히 고유어로 된 고장이름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조사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 사업이 매우 방대하여 언어학자들의 힘으로 원만히 수행할 수 없어 1966년 5월 14일에 이 사업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밀고 나가기 위해 강력적 지침과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였다. ... 1966년 9월 27일 내각 명령 제13호 <고유한 조선말지명을 조사할데 대하여>를 지시하고, ‘전국지명사정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 조직되었다. 이 위원회는 내각부수상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도, 시, 군별로 조직되었다. 위원회에 포함된 언어학자들은 정권 기관과 교육기관 등에서 동원된 지명조사상무성원들과 함께 전국의 행정구역이름과 자연부락이름, 지형지물 이름과 자연지명 등을 조사하기 위한 일대 캠페니아(캠페인)을 벌였다. 언어학계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되는 지명조사사업이 행정실무적인 사업으로만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 시, 군에 언어학자들을 파견함으로써 이 사업이 과학성과 신빙성이 보장된 자료들을 조사 장악하는 하나의 학술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박재수, 1999, 99쪽, 298쪽).

내용을 보면 지명 조사는 중앙에 전국지명사정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각 도, 시, 군(구역)에는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책임자로 하는 지명조사위원회가, 리급 단위에는 지명조사조가 조직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사에서 언어학자들의 역할은 ‘일정한 지역을 맡아 그 지방의 지명을 역사언어학적으로 연구하여 해당 지명의 유래와 변천 역사를 밝히는 한편 정리해야 할 지명 대상을 확정하여 고유한 조선말로 새 지명대안의 작성’이었다. 각 시군의 조사위원들은 ‘학술적지도사업’을 담당하였다. 다음은 북한 자료에 소개된 조사사업 결과이다.

지명 조사 결과 행정 지명은 군급지명 214개, 리급지명 4,508개가 집계되었다. 대부분의 지명은 한자 지명이었으며 고유어 지명은 57개였다. 고유어 지명 중 36개는 조사 진행과정에서 개정된 것이며 21개도 원래 고유어 지명이

었으나 한자로 표기된 것이었다. 자연지명은 476,750개가 조사되었다. 이중 고유어지명은 257,742개였으며, 한자말이나 그 밖의 다른 말로 된 지명은 199,385개, 고유어와 한자어가 함께 사용된 것은 20,133개였다. 지명 조사를 통해 거리와 마을을 비롯하여 산·등의 자연지명 등의 모든 대상에 대한 이름과 지명의 민간적인 유래, 읍지, 군지, 향토지 등의 문헌에 수록된 유래를 포함하여 고장 이름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과 전설까지도 모두 수집하였다(조창선, 2002).

지명 조사 사업의 결과는 『전국지명조사보고서』(1967)로 정리되었으며 이는 이후 지명 정책의 기초 자료와 지명 사전 편찬(후술)에 활용하였다. 이 조사사업의 표면적인 목표는 후속 사업인 지명 정리를 위한 것이었다. 기본 원칙은 일제 식민지 잔재를 일시에 청산하는 것이었고, 고유어로 된 고장 이름을 적극적으로 살려 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목표는 지명을 사회주의에 대한 충성심이나 북한 사회에서 행복감을 표현하는 등 정치사상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명을 고유어로 바꾸면서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하였으며, 한자말을 그대로 두면서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유래를 재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 3) 지명 관리 기관과 ‘지명창조’ 사업

#### (1) 관리 기관

북한의 지명 관리 주체는 언어학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이다. 사회과학원은 1964년 2월 북한의 내각결정 제11호에 의하여 1952년 10월에 결성된 과학원의 산하기관 중에서 사회인문과학 분야를 넘겨 받은 것이다. 이 기관은 공산당의 정책을 합리화하고 혁명 이론에 입각하여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소위 창조적인 발전을 도와주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사회과학원이 신설된 계기는 앞서 언급된 1964년 1월 3일에 있었던 언어학자들에 대한 김일성의 1차 담화가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립국어원, 1992)

사회과학원 산하에는 경제연구소, 고고학연구소, 언어학연구소 등 1실 17개 연구소가 있다. 이 중 언어학연구소는 당과의 관계에서 당정책 기관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으로 국가에서 부과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연구소의 상근인원은 50명, 비상근 연구원이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관지로는 『문화어학습』, 『조선어문』 등이 있으며 지명 관련 글을 발표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이 연구소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1960년대 이후 소위 ‘창조’된 지명의 유형

유형	사례 지명
1) 인명 지명	1) 불멸의 지명 : 금성거리, 김일성광장, 정일봉, 김정숙군, 장군봉, 향도봉, 장군봉(어은동), 장자산(자강도) 2) 기타 인명 지명 : 김형직군, 김형권군 등,
2) 혁명 관련	1) 왕재산리(운성), 삼지연군(양강도) 2) 현지도 의미 : 상봉동(청남구, 천리마구역), 오일노동자구(장강, 갑산), 구오동(만포시), 9월동(평성시) 3) 현지지도를 찬양 : 영광동(해주시), 광명리(홍원군) 4) 충성심 : 충성동(강계시, 청남구, 대안구역), 은덕동(은덕 외), 오정리(서흥군), 은혜리(은율, 덕성리(함흥 외))
3) 고유어	1) 새로 홍합 : 새길리(신천), 새날리(신천), 새살림(동대원구역) 2) (색깔) : 새벌동(함흥), 해빛리(숙천), 금빛, 은빛(함흥), 흰실동(함흥) 3) 섬유 : 비단섬(갈섬), 비단리(금야)
4) 전설에 기초	1) 김일성 : 군합바위, 썰매바위(평양 만경대구역) 2) 김정일 : 룡마바위, 장검바위(양강도 삼지연군)

출처: 조창선, 2002, 『조선지명연구』, 395~411에 의거 재정리

(2) ‘지명창조’ 사업

1966년 지명 조사 사업이 마무리된 후 지명의 주체적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에서는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는 지명과 업적을 찬양하는 지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sup>4)</sup>. <표 1>은 북한 자료에 수록된 주체사상 이후에 ‘창조된 사례 지명’이다.

첫째 유형은 지명의 전부요소에 사람 이름을 사용한 인명지명이다. 대부분의 지명은 김일성 가계에 속한 인물들의 이름이나 상징 단어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금성거리는 1970년대 평양의 금수산 의사당(현 금수산태양궁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리 이름이다. ‘금성’은 김일성을 상징한다. 정일봉의 경우 백두산 장군봉 아래의 지명으로 김정일을 의미한다. 1981년에는 김정일의 생모 이름을 이용하여 신과군을 김정숙군으로 하였다. 이들 지명은 북한에서 영생불멸의 지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외에 인명을 이용하여 지명을 바꾼 것은 1988년 후창군에서 바뀐 김형직군, 1990년 풍산군에서 변경한 김형권군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외에 사회주의 혁명에 기여한 인물의 이름을 이용하여 거리 이름이나 고장의 리 이름을 변경하였다.

둘째 유형은 혁명 사업과 관련한 지명이다. 이들 지명은 혁명 현장의 지명을 이용하거나 김일성과 김정일의 현장 지도 내용을 반영한다. 왕재산리와 삼지연군<sup>5)</sup>의 경우 혁명 현장의 자연 지명을 이용하여 행정지명을 바꾼 경우이다. 상봉동은 현지 지도에서 김일성과의 만남을 찬양하는 내용이며 오일노동지구, 구오동, 9월동 등은 현지 지도를 한 날짜를 기리는 지명이다. 영광동, 광명리는 현장 지도를 찬양하고, 충성동, 은덕동, 오정리, 은혜리는 노동당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낸다.

셋째 유형은 고유어를 사용한 지명이다. 1964년 지명에 고유어를 사용하라는 교시에 따라 기존의 한자 지명을 바꾼 경우이다. 이때 나타나는 고유어 지명은 사회주의에서 언어의 국제어 합류 이전 단계인 민족어 형성차원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지명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들이 나타났다. 새길리, 새날리, 새살림 등의 지명은 사회주의에서 새로 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벽과 빛을 이용한 새벽동, 해빛리, 금빛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비단’ 지명이 자주 사용되는 것은 금수산의사당(현 금수산태양궁전)과 관련이 있다. 전설 지명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릴 적의 이야기를 전설로 미화하여 새롭게 만든 지명이다.

### 3. 지명 연구 동향

#### 1) 지명학 이론서

북한에서 지명에 관한 이론서가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은 『조선어학전서』(2002)의 발행 일환으로 간행된 4권의 책이 있다. 이 책은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행되었으며, 동일한 내용의 책이 2002년과

표 2. 『조선어학전서』(2002) 지명학 이론서 내용

제34권: 『조선어명칭론연구』 (방린봉, 295쪽, 조선어학전서 34권, 3편)
제1장 고장이름의 개념과 특성 제2장 고장이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제3장 고장이름의 구조와 단위 제4장 고장이름짓기의 제 요소
제35권: 『조선지명 변천에 대한 역사문화학적 연구』 (정순기, 303쪽, 조선어학전서 36권)
제1장 『삼국사기』지리지에 반영된 고장이름과 변천 제2장 『고려사』지리지에 반영된 고장이름과 변천 제3장 『세종실록지리지』에 반영된 고장이름과 변천 제4장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반영된 고장이름과 변천 제5장 『대동수경』과 『대동여지도』의 고장이름과 변천
제36권: 『조선지명학』 (박명훈, 247쪽, 조선어학전서 35권)
제1장 지명에 대한 일반적 이해 제2장 지명의 기능과 역할 제3장 지명의 언어구조 제4장 지명의 조성 제5장 지명의 유형 제6장 지명의 역사적 변화 제7장 조선지명의 주체적 발전
제37권: 『조선지명연구』 (조창선, 411쪽, 조선어학전서 37권)
제1장 조선지명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제2장 지명의 기능 제3장 지명 분류 제4장 지명의 명명적계기와 수법 제5장 조선지명해독 제6장 조선지명의 역사적 변천

2005년에 간행된 것으로 보아 재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표 2〉는 책의 서지정보와 내용 구성이다. 제34권의 『조선어명칭론』은 경우 사람과 사물 및 지명에 대한 명칭의 특성을 다루면서 3편에 지명의 개념, 역사적 고찰, 구조와 단위, 이름짓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35권의 『조선지명변천에 대한 역사문화학적 연구』는 언어학자인 정순기가 저술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지리서인 『삼국사기』와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수경』, 『대동여지도』에 수록된 지명을 이전의 지리서와 비교를 통해 변화 내용과 유형을 정리하였다. 『대동여지도』에는 11,600여개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신증동국여지승람』 수록 지명과 비교 분석하였다.

제36권의 『조선지명학』은 지명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기능 및 역할, 언어구조, 조성 및 유형, 역사적 변화와 지명이 주체적으로 발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6장과 제7장에서는 언어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6장에서는 지명의 변화를 언어적 관계, 사회적 요인에 의해 구분하면서, 제3절에서는 고대부터 광복 이후의 지명 특성, 제4절에서는 주체사상 이후의 지명 변화를 다루었다.

『조선지명연구』는 다른 책에 비해 지명의 분류와 명명 계기, 지명의 특징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제1장의 문체점 계기에서는 지명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자료 고찰과 방법론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지명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는

“지명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언어적 수단이다.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며 문화를 창조하는 인간의 활동에서 지명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적 수단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대상에 대하여 이름지어 주고 끊임 없이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명이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고 있다.”(5쪽)

라 하여 사회 생활의 언어적 수단으로 지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연의 정복, 사회 개조에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의 지명 기능에서

는 ① 어느 한 고장을 가리키는 언어적 수단 ② 지역을 구별해 주는 언어적 표현 수단 ③ 명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적 수단 ④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주는 힘있는 수단 ⑤ 국가의 정부 활동을 진행하는 중요한 언어적 수단 ⑥ 나라의 과학발전에 이바지하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원천지로 정리하고 있다.

이어 제3장에서는 지명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① 길이 전할지명과 정리할 지명 ② 전승지명과 바꾼 지명 ③ 새지명과 낡은 지명 ④ 본지명과 별칭지명 ⑤ 전체지명과 부분지명 ⑥ 고유어지명과 한자말 지명 ⑦ 문화어지명과 방언지명 ⑧ 합침지명과 분리지명 ⑨ 동명지명과 비동명지명 ⑩ 일반지명과 희귀지명 ⑪ 대상논리적명과 형상적 지명 등 11가지로 분류하였다.

제1유형의 ‘길이 전할 지명’으로는 주체적인 지명사상과 이론에 의해 새롭게 생긴 ‘본보기 지명’으로 대표적인 것은 소위 ‘백두산3대장군(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의 이름을 이용한 ‘인명표식지명’과 김일성과 김정일이 현장 지도하면서 만든 소위 ‘친제지명(親制地名)’을 예로 들고 있다.

정리할 지명으로는 ‘① 봉건적 지명 ② 유교적이면서 미신적인 지명(예 사직동, 태평동) ③ 여진말지명(예 아오지리, 주을리, 오모로리, 오로군, 니망지리, 주을온포리, 서수라리) ④ 일본말지명 ⑤ 씨족문벌, 성씨지명(예 지장동, 형팔리, 예춘리, 병술리) ⑥ 다른 나라와 관련된 지명 ⑦ 동일한 행정구역 지명(예 황해남도 강령군 금수리, 용연군 금수리, 고원군 금수리)’을 예로 들고 있다. 이후 제4장에서 지명의 명명에 대한 사회 및 역사적 계기와 명명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지명의 해독 방법을, 제6장에서는 해방 이후 지명 관리 내용을 다루고 있다.

## 2) 지명 사전

### (1) 사건의 서지 내용

〈표 3〉은 북한에서 편찬된 지명사전이다. 대부분 1980년대 이후 발행되었으며<sup>6)</sup>, 이 중 『고장이름유래집』(1986)은 행정구역과 관련된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반 참고서인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행정지명의 유래를 역사적으로 밝힌 편람으

표 3. 북한에서 편찬된 지명 사전류

연도	책 이름	저자수	권수
1986	『고장이름유래집』	김봉환외 5명	미상
1992	『고장이름변천역사』	김봉환	미상
1995	『조선지명사전』	박태훈 등	510쪽
1998	『지명이야기』	미상	11권
1998	『남조선지명』	미상	5권
1999	『조선지명유래전자사전』	리성남, 윤광현	미상
2000	『고장이름사전』	117명	10권
2002	『조선지명편람』	10명	10권
2004	『조선향토대백과』	약 1,000명	20권

로 옛부터 유래된 것은 역사적 변천 내용을 다루었으며 합성 지명의 바탕이 된 기초 지명의 유래를 밝히고 있으며, 김일성이 명명한 지명에 대해서도 근거를 소개하고 있다. 『고장이름변천역사』(1992)는 고장 이름을 지명의 구조와 조성 수단 및 수법, 표기 방식 등 국어 음운 변화사와 관련하여 서술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지명이야기』(1998)와 『남조선지명』(1998)은 북한의 건국 50주년을 기념하여 간행된 책이다(박재수, 1999, 307-308). 한편 『조선지명유래전자사전』(1999)은 『조선지명사전』(1995)를 이용하여 구축한 전자 사전으로 추정된다.

지명 사전류 중 가장 최근에 발행된 『조선향토대백과』(2004)는 남·북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편찬된 사전이다. 북한 학자들이 집필한 원고를 중

국 측에서 컴퓨터로 입력하고 이를 토대로 남한이 편집 작업을 통해 편찬된 것이다. 책에는 지명뿐만 아니라 향토문화 관련 항목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북한에서 출간한 지명 사전으로 가장 본격적인 것은 『고장이름사전』(2000)이다. 국가 보물급으로도 평가받고 있으며<sup>7)</sup>, 내용은 『전국지명조사보고서』(1967)을 기본으로 하였다(박재수, 1999). 약 30만개의 지명의 유래를 담고 있으며 행정지명을 포함하여 자연지명, 고지명(古地名)까지 수록하였다. <표 4>는 이 책의 서지 내용이다. 총 10권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 면수는 4,592쪽에 달한다. 도별 분량은 평안북도가 631쪽으로 가장 많으며 자강도가 235쪽이다. 발행일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2000~2002년 사이이다. 10권 모

표 4. 『고장이름사전』의 편찬 체제

지역	쪽수	발행일	참여(명)	책임집필
평안남도	567	2000. 12. 10	51	정순기
평안북도	631	2001. 6. 10	54	박명훈
평양시, 남포시	379	2001. 4. 15	49	정순기
황해남도	477	2002. 3. 10	51	한정직
황해북도, 개성시	453	2002. 3. 30	54	최정후, 주충섭
강원도	432	2002. 3. 20	51	김성근
량강도	235	2002. 4. 10	50	강진철
자강도	310	2001. 8. 20	53	류 렬
함경남도	609	2002. 2. 10	49	정용호
함경북도, 라선시	499	2002. 1. 20	48	조창선



표 5. 『조선지명편람』 편찬 체제

『조선지명편람』	권수	쪽수	출판일	집필
평양직할시	54	674	2001. 1	방린봉외 6인*
평안남도	55	529	2002. 5	안경상
평안북도	56	695	2002. 6.	박명훈
함경남도	57	734	2002. 5	방린봉
함경북도·나선시	58	650	2002. 5	조창선
자강도	59	442	2002. 1	장근수
양강도	60	332	2002. 5	강진철
강원도	61	491	2002. 1	서학순
황해남도	62	672	2002. 5	리성호
황해북도	63	704	2002. 5	안순남
개성시·남포시	64	394	2002. 5	장영남

\*: 조창선, 박명훈, 이정희, 백운혁, 리성환, 박인직

두 정순기가 편찬 책임을 맡고 있으며 지역별로 집필 책임자가 별도로 소개되어 있다. 참여 인력은 각 책당 50명 내외로, 전체를 합치면 509명이다. 각 도별로 보조원으로 추정되는 3~5인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한 학자가 여러 권의 집필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전체 10권의 집필에 참여한 학자는 36명에 달하고 있으며, 총 117명이 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지명편람』(2002)은 『조선어학전서』(총65권)의 편찬의 일환으로 간행된 것으로 제7부 중 제54권~제64권에 해당된다. <표 5>는 책의 서지 내용이다. 각 책의 면수는 394쪽~695쪽에 달하며 발행일은 2001년 1월~2002년 6월 사이이다. 지명 항목은 각 도별 가나다순으로 편제되어 있다. 참여 인력은 집필과 심사, 교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평양직할시편의 경우 방린봉, 조창선, 박명훈, 이정희, 백운혁, 리성환, 박인직 등 7명의 공동 집필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1명의 학자가 단독 집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사전에서 지명 설명 내용

다음은 평양직할시 중구역에 소재한 경상동에 대해 『고장이름사전』, 『조선지명편람』, 『조선향토대백과』에 설명된 내용이다.

**경상동(慶上洞)** 구역의 북동쪽 대동강기슭에

있는 동. 리조말기에는 평안남도 평양부 대흥면의 한 리였다. 경상골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이라 하여 <<경상동>>이라 하였다. 주체35(1946)년에 평양특별시 중구 경상리, 주체41(1952)년 중구역 경상리, 주체44(1955)년에 중구역 경상동으로 되었다. 경상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려 차계 현지지도를 하신 영광의 고장이다. 동에는 모란봉, 룡라도, 청년공원 등 공원, 유원지들이 있으며 평양성과 영명사터, 부벽루, 을밀대, 청류정, 전금문, 현무문, 칠성문 등 유적들이 있다. 또한 옥류농수버들, 청류벽회화나무, 룡라도 산벗나무와 전나무, 룡라도수양버들 등 천연기념물들과 옥류약수터가 있다(『고장이름사전』, 평양시·남포시편, 32쪽).

**경상동(景上洞)** 구역의 동북쪽에 있는 동. 리조말에는 평안남도 평양부 대흥면의 경상동이였다. 경사스럽게 을밀봉으로 오르는 첫 어구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경상동>>이라 하였다. 주체 35(1946)년 9월 리문리, 경제리, 신창리가 편입되어 평양특별시 중구 경상리로 되었으며, 주체 41(1952)년 12월에는 중구역 경상리로, 주체 44(1955)년 2월에는 룡라도와 사창동 일부 지역이 편입되어 중구역 경상동이 되었다. 주체 48(1959년) 9월 사창동이 편입되었다(『조선지명편람』, 평양직할시편, 49쪽).

**경상동(慶上洞)** 평양시 중구역 21동의 하나. 구역의 북동쪽 대동강기슭에 있는 동. 본래 평안남도 평양부 대흥면 지역으로서 경상골을 중

심으로 하는 마을이라 하여 경상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에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평안남도 평양부 경제리에 편입하였고, 1946년에 평양특별시 중구 경상리로 되면서 평안남도 평양부 신창리, 리문리, 경제리, 차관리, 염점리등 지역을 흡수하였으며, 1952년에 중구가 중구역으로 되면서 중구역 경상리로 되었다. 1955년에 동제의 실시에 따라 중구역 경상동으로 되면서 중구역 룡라리와 문수리를 편입하였고, 1959년에 중구역 사창동이 편입되었으며, 1965년에 일부 지역을 분리하여 중구역 경림동 일부와 병합하여 대동문동을 신설하였다(『조선향토대백과』, 평양직할시편, 425쪽).

『고장이름사전』에서는 지명을 위치정보-지명유래-연혁-김일성 관련 내용-유적 및 지리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지명편람』은 위치-지명유래-연혁 순으로, 『조선향토대백과』는 행정구역-위치정보-지명유래-연혁 순으로 담고 있다. 3책에서는 공통적으로 위치정보, 지명유래, 연혁을 모두 담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내용과 김일성 관련 내용은 『고장이름사전』에서만 수록되어 있다. 유래의 설명에서는 『조선지명편람』이 다른 책과는 다르게 되어 있으며 한자 표기도 다르다. 이를 볼때 『조선향토대백과』는 『고장이름사전』을 바탕으로 재편집되었으며<sup>8)</sup>, 『조선지명편람』은 기존의 자료를 상당 부분 재구성하여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사전에서 지명 유래 설명에 이용된 자료는 『삼국사기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조선 후기의 『대동지지』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고지도의 경우 『대동여지도』를 제외하고는 언급이 없다. 일제강점기의 자료로는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7)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 3) 학술잡지

현재 북한에서 지명 전문 학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명 관련 글이 수록된 잡지와 논문집 중 대표적인 것은 언어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문화어학습』이다. 남한의 『새국어생활』과 같이 대중들의 문화어(표준어) 교육을 위한 이 잡지는 수필, 단보, 논문 등 다양한 형태의 글을 수록하며, 언어

교화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지명 관련 글로는 지명소개, 명명법, 변화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이외의 잡지로는 『조선여성』(조선여성사 발행)와 『민족문화유산』(조선문화보존사 발행)에 지명 유래에 관련한 글들이 확인되고 있다. 학술지인 『김일성대학종합학보』(어문학)과 『역사과학』(사회과학출판사) 등에서 지명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 (1) 지명 논문

〈표 6〉은 학위논문과 잡지 및 논문집에 발표된 글 중 논문 수준의 내용을 갖추고 있는 글이다. 지명 관련 학위 논문으로는 4편이 파악되었다. 이중 가장 먼저 발표된 논문은 김성근(1978)의 「조선고장이름에 대한 연구」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장 이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요구로 첫째 당성과 노동계급성의 요구에 맞아야 하며, 둘째는 고유어를 이용할 것, 셋째로 문화성을 보장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선우용화(1987)의 논문은 ‘해방 이후 행정지명에서 일어난 가장 특징적인 변화를 인민적인 어휘에 기초하여’ 재편성된 것, 정치사상적인 어휘로 재편성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조창선(1991)과 박명훈(1991)의 논문은 자연지리적인 대상들의 이름에 대한 지명학적 연구를 시도한 최초의 논문으로 평가되고 있다(박재수, 1999).

조창선(1991)의 논문에서는 ‘산 이름 명명 계기를 외적 특성의 유사성에서 오는 것, 인접한 대상현상의 유사성에서 오는 것,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박명훈(1991)의 논문에서는 강하천 이름에 대해 규정 및 피규정의 관계로 이루어지면서 단계적 결합이 강함을 밝히고 있다.

잡지별로 보면 『문화어학습』에는 2000년대 이후에 많은 글이 게재되어 있다. 서학순(2004)은 지명의 표식부와 중별부(혹은 단위부, 남한의 후부요소)의 결합 관계의 특성을 주제로 하고 있다. 송상길(2005)은 섬 이름에 대해 형성 원인과 관련하여 지명 유형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박명훈(2005a)은 고장 이름의 명명법의 방법에서 ‘혁명적 실머리, 자연지리적 실머리, 사회정치적 실머리’와 파생지명과 지명의 합성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명훈(2005b)에서는 해방 이후 북한의 지명 관리정책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리성호

표 6. 북한의 지명 관련 논문

저자	연도	논문 제목	
<b>[학위논문, 수여대학 미상]</b>			
조창선	1991	『우리나라 산이름에 대한 연구』	
김성근	1978	『조선고장이름에 대한 연구』	
선우용화	1987	『해방후 우리나라 행정지명의 주체적 발전』	
박명훈	1991	『우리나라 강하천이름에 대한 연구』	
<b>[문화어학습]</b>			
최완호	1997	자연지명의 방언을 두고	
서학순	2004	우리나라 지명의 단어 조성적 특성	
김윤성	2004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통하여 본 우리 선조들의 자연 지물들에 대한 이름달기 몇가지 방법	
송상길	2005	우리나라 섬이름의 주요 특성	
박명훈	2005a	고장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박명훈	2005b	고장 이름의 주체적 발전을 위한 현명한 정도	
서학순	2006	고구려 행정지명에서 표기 수단의 통계적 고찰	
서학순	2008	이초조 행정구역 단위에 <도>의 특수한 사용과 그 단위적 성격	
리성호	2009	고장이름의 주체적 발전에 갖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정도	
서학순	2010	지명의 사회학적 역할	
<b>[일반 논문집]</b>			
럼종률	1997	『삼국사기』에 반영된 고구려지명 표기와 고구려어 및 한자음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김영황	2007	우리말 지명에 반영된 고구려의 언어 유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김영황	2009	평양의 옛 고구려 고장이름에 대한 언어적 분석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리성남·윤광현	1999	『조선지명유래전자사전』의 구성에 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자연과학)
홍기문	1963	삼국시대의 지명과 조선어의 계통문제	『조선어학』
정순기	2007	역사문헌에 있는 몇 개 지명에 대한 해석	『조선어문』
조창선	2002	광복후 조선지명의 주체적 발전	『사회과학원학보』
채태형	1990	15세기 전반기의 도시 명칭 개정에 대하여	『역사과학』

(2009)는 해방 이후 지명이 정비되는 과정과 『전국지명조사보고서』가 편찬되는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서학순(2010)은 북한 사회에서 혁명투쟁 내용과 민족문화 유산적인 측면에서 지명의 역할과 설명을 시도하였다.

일반 논문집 중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에 3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럽종률(1997)은 삼국사기 고구려 지명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고, 김영황(2007, 2009)는 고구려어를 바탕으로 지명

을 해석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의 리성남·윤광현(1999)에서는 지명 전자사전의 제작틀을 소개하였다.

『조선어학』에 수록된 「삼국시대의 지명과 조선어 계통문제」(홍기문, 1963) 논문은 북한에서 최초의 지명 논문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의 문헌에 수록된 지명에 대한 언어학적인 고찰을 통해 지명의 특성을 밝히고 있으나 학문으로서의 수준은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

다.(박재수, 1999) 『조선어문』에 수록된 정순기(2007)의 논문은 역사문헌에 수록된 지명의 해석에서 자연지리정보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이두식 해석에만 치우쳐 적지 않은 오류가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과학원학보』의 조창선(2002)의 글에서는 분단 이후 북한 지명의 변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역사과학』에 수록된 채태형(1990)의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군현을 개편하면서 나타난 지명 변화를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잡지별 게재 논문의 주제를 보면 『문화어학습』에서는 지명의 사회성을 다룬 글들이 다른 잡지의 경우 지명의 역사성에 초점을 두는 논문이 게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문화어학습』 게재 글 분석

〈표 7〉은 『문화어학습』에 수록된 지명 관련 글을 발표시기와 내용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지명 관련 글은 결호분을 제외하고 86편이 파악되었다. 시기별로 수록 편수를 보면 1980년대 26편, 1990년대 16편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으나 2000년대 들어 44편으로 증가되었다. 주제별로 보면 전설을 바탕으로 지명의 유래를 설명한 글이 16편으로 가장 많고, 김일성·김정일이 명명한 지명을 찬양하는 글이 14편이다. 지명 유래에 대해 사료를 통해 설명을 시도한 글이 13편이다.

시기별 글의 주제를 보면 변화 추이가 뚜렷하

다. 1990년 이전까지는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한 지명의 명명법에 대해 다룬 글이 7편, 김일성·김정일이 현장 지도하면서 명명한 지명(이하 ‘친제지명’)에 대한 찬양 글이 9편으로 전체 글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전설을 이용하여 지명 유래를 설명하는 글이 8편으로 거의 절반을 이루고 명명 방법에 대한 글은 게재되고 있지 않다. ‘친제지명’에 대한 찬양의 글은 2편에 불과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글의 주제별 비율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다. ‘친제지명’에 대한 찬양글의 편수는 증가하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히 감소한다. 동시에 사회주의 지명을 찬양한 글의 비율도 적어진다. 반면에 지명 유래에 대해 정치이념을 반영하지 않고 해석을 시도한 글이 1980년대에 이어 다시 증가하며, 전설을 이용하여 지명 유래의 설명을 시도한 글도 증가한다. 이 시기에 발표된 글에서는 지역별 지명 특색과 관련된 글이 연재 형식으로 수록되고(예; ‘평안남도 지명의 특색’) 정치이념의 반영없이 지명 설명을 시도한 글이 증가하여 주목된다.

(3) 지명 연구 학자

〈표 8〉은 『조선어학전서』의 지명 이론서와 『조선지명편람』 편찬의 집필에 참여한 학자, 『고장이름사전』에 각 도별 집필 책임자의 이름이다. 총

표 7. 시기·주제별 『문화어학습』 수록 글

주 제	~1989년	1990~1999년	2000년~	합계
명명방법론	7	-	-	7
‘친제지명’ 찬양	9	2	3	14
사회주의 지명에 대한 찬양	1	2	1	4
상식_지명 변화 및 외국 지명 소개	2	1	-	3
지명에 대한 단편적 설명	-	-	8	8
사료를 이용한 유래 해석	5	1	7	13
전설에 의한 유래 설명	2	8	6	16
전설을 김일성 찬양으로 해석	-	1	1	2
지역내 지명	-	-	9	9
지명학 논문	-	1	9	11
합 계	26	16	44	86

\* 결호: 1972~1978년, 1998~2000년, 2011년

21명이 추출되었으며, 직위와 학위는 후보원사, 박사, 교수, 학사도 다양하다<sup>9)</sup>.

지명 연구로 직급이 가장 높은 인물은 최정후(후보원사, 박사 교수)이다. 『조선지명편람』 편찬에서는 황해북도편의 심사를 리원경과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고장이름사전』에 전 지역에 집필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문화어학습』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방언에 관한 이론」(1994) 제하의 글을 발표하였다.

『조선지명변천에 대한 역사문헌학적 연구』의 저자인 정순기(박사, 교수)는 『내고장이름사전』 전체

의 책임 편찬으로 되어 있으며 『조선지명편람』의 평안남도편과 평양시·남포시편의 책임 집필을 하였다. 1984년 『문화어학습』에 「조선어 이론 연구 분야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진」 제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당시 학위는 준박사, 직책은 언어연구소장으로 수록되어 있다. 1992년 5월 12일자 『노동신문』에는 언어연구소장으로 소개되어 있다. 2002년 『문화어학습』지에 「오봉산의 유래」 제하의 논문과 2007년에 『조선어문』에 「역사문헌에 있는 몇 개 지명에 대한 해석」 제하의 논문을 기고할 때 당시 직책은 교수 박사로 소개되어 있다. 『조

표 8. 『조선지명편람』과 『고장이름사전』의 책임 집필 인명

이름(학위 및 직위)	참여 서적(역할)
최정후(후보원사, 박사 교수)	『고장이름사전』 황해북도 책임집필
정순기(박사, 교수)	『조선지명변천에 대한 역사문헌학적 연구』 집필 『고장이름사전』 편찬 책임 『조선지명편람』 평안남도, 평양시·남포시 집필책임
김성근(박사, 부교수)	『고장이름사전』 강원도 책임집필
방린봉(박사, 부교수)	『조선어 명칭론 연구』 집필 『조선지명편람』 함경남도(단독), 평양직할시(공동)
장진철(박사, 부교수)	『조선지명편람』 양강도(단독)
조창선(학사)	『조선지명연구』 집필 『조선지명편람』 함경북도·나선시(단독), 평양직할시(공동) 『고장이름사전』 함경북도·나선시 책임집필
박명훈(학사)	『조선지명학』 집필 『조선지명편람』 평안북도(단독), 평양직할시(공동) 『고장이름사전』 평안북도 책임 집필
안경상(학사)	『조선지명편람』 평안남도(단독)
안순남(학사)	『조선지명편람』 황해북도(단독)
장영남(학사)	『조선지명편람』 개성시·남포시(단독)
장근수(학사)	『조선지명편람』 자강도(단독)
서학순(학사)	『조선지명편람』 강원도(단독)
리성호(-)	『조선지명편람』 황해남도(단독)
백운혁(학사)	『조선지명편람』 평양직할시(공동)
리정희(학사)	『조선지명편람』 평양직할시(공동)
박인직(-)	『조선지명편람』 평양직할시(공동)
리성환(-)	『조선지명편람』 평양직할시(공동)
류 렬(부교수)	『고장이름사전』 자강도 책임집필
주충섭(미상)	『고장이름사전』 개성시 책임집필
한정직(미상)	『고장이름사전』 황해남도 책임집필
정용호(미상)	『고장이름사전』 함경남도 책임집필

선향토대백과』(2004)에서는 대표자로 집필 소감문을 수록하였으며 당시 직책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교수 박사’로 소개되어 있다. 북한에서 조선어학과 지명 연구에 중심 역할을 하는 인물로 보인다.

『고장이름사전』의 강원도 집필 책임을 맡은 김성근(박사, 부교수)은 『조선지명편람』의 개성시와 남포시편을 심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78년 최초로 지명 논문으로 학위를 받는 학자로 소개되어 있으며 일찍부터 『문화어학습』에 여러 글을 기고하였다. 1971년에 「우리말로 지은 고장이름」을 기고한 것을 시작으로 1979년부터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의 연재물로 고장, 거리, 다리, 건물 이름에 관련된 글을, 1981년에 「고유어로 된 고장이름」을 기고하였다.

『조선어명칭론연구』를 집필한 방린봉(박사, 부교수)은 『조선지명편람』에서 함경남도과 평양직할시편을 집필하였다. 『고장이름사전』 집필에는 전 지역에 참여했으나 『문화어학습』 등의 논문집에 지명 관련 논문은 없다. 『조선지명편람』 양강도편을 저술한 강진철과 평안남도·양강도·강원도를 심사한 리기원도 방린봉과 같은 경우이다.

『조선지명연구』를 저술한 조창선(학사)은 『조선지명편람』에서 함경북도와 나선시편을 단독으로 집필하였으며 평양직할시편 집필에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내고장이름사전』에서 함경북도·나선시편을 책임 집필하고 전체 도의 집필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과학원학보』(2002)에 「광복후 조선지명의 주체적 발전」 제하의 논문을 기고하였으며 『문화어학습』에 발표 글은 없다.

『조선지명학』을 단독 저술한 박명훈(학사)은 『고장이름사전』 편찬에는 전도에 걸쳐 참여하였다. 『조선지명편람』의 평안북도편을 단독 집필하였으며 평양직할시편 집필에 공동 참여하였다. 평안남도과 강원도편에는 편집 책임으로 되어 있다. 1991년 강하천 이름을 주제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문화어학습』에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날로 개화만발하는 고장이름」(2003)과 「우리나라 도 이름의 역사와 유래」(2003)를, 2005년에는 「고장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와 「고장이름의 주체적 발전을 위한 현명한 영도」 제하의 글을 기고하였다.

『조선지명편람』의 평안남도편을 단독으로 집필한 안경상(학사)은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북도와 나선시를 공동으로 심사하였다. 『고장이름사전』 편찬에서 전 지역에 참여하였으며, 『문화어학습』에 「황해남도의 특이한 지명들과 그 유래」(2003)과 「황해남도 지명이야기」(2005)의 글을 발표하였다.

『조선지명편람』의 황해북도편을 단독 집필한 안순남(학사)은 『고장이름사전』 편찬에서 전 지역에 참여하였으나, 지명 관련 글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개성과 남포시편을 단독 집필하고 함경남도편을 심사한 장영남(학사)도 안순남과 동일한 경우이다. 자강도를 단독으로 집필한 장근수(학사)는 『조선지명편람』 편찬외에 다른 글은 없다.

『조선지명편람』의 강원도편을 단독으로 집필한 서학순(학사)은 2004년 이후 『문화어학습』에 「우리나라 지명의 단어 조성적 특성」 등의 논문을 비롯하여 「고구려 행정지명에서 표기 수단의 통계적 고찰」, 「이조 초 행정구역 단위어 ‘도’의 특수한 사용과 그 단위적 성격」, 「지명의 사회학적 역할」 제하의 글들을 기고하였다. 『고장이름사전』의 편찬위원 명단에 올라가 있지 않고 박재수(1999)의 글에서 학위논문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0년대 초반에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지명편람』의 황해남도편을 단독으로 집필한 리성호는 『고장이름사전』의 편찬에 전 지역에 참여하였으며 『문화어학습』(2009)에 「고장이름의 주체적 발전에 깃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령도」 제하의 논문을 발표한 인물이다. 『조선지명편람』의 평양직할시편을 공동 집필에 참여한 인물들로 백운혁, 이정희, 박인직, 리성환 등이 확인된다. 이들은 대부분 『고장이름사전』의 집필에도 참여하였으나 지명 관련 글이나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고장이름사전』 자강도편의 책임 집필을 맡은 류렬(부교수)은 『문화어학습』에 「우리말이 걸어온 역사」 제하의 연재글을 10여 차례에 걸쳐 기고한 것으로 보아 언어학자인 것으로 보인다. 개성시편을 책임 집필한 주충섭은 『문화어학습』(1989)에 「영광의 이름-유경호텔-」 제하의 글을 기고한 바 있다. 황해남도과 함경남도과 집필 책임자인 한정직과 정용호의 경우 지명 관련 글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고장이름사전』과 『조선지명편람』 편찬 사

업 명단에 없으나 『문화어학습』에 2000대 이후 여러 편의 글을 기고한 인물로서 김윤성(부교수 학사)과 박순이가 있다. 김윤성은 「대흥단의 이름 유래」(2001), 「별창마을의 유래와 혁명 전설」, 「이 압리의 유래와 혁명 전설」과 2004년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사료를 바탕으로 자연 지명에 대한 글을 수록한 바 있다. 박순이는 2006년 이후 평안북도,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등의 도별 지명 유래에 대한 글을 연재물 형식으로 8편의 글을 기고하고 있다. 이상 『고장이름사전』과 『조선지명편람』에 참여한 학자들의 글을 분석하여 볼 때 북한에서 지명 연구는 정순기를 비롯하여, 김성근, 조창선, 박명훈, 안경상과 서학순과 함께 김윤성, 박순이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맺음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스탈린의 언어도구관을 받아들이며 지명을 언어와 함께 사회의 하부구조로 인식하여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특히 1960년대 중반 이후 문화어운동을 전개하면서 지명을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언어 도구로 사용하였다. 1966년의 전국 지명의 조사 이후에는 지명 관리를 진행하면서 기존 지명을 바꾸었다.

이들 지명은 고유어지명과 선전지명으로 구분된다. 고유어지명은 사회주의에서 국제어 합류로의 이전 단계인 민족어 형성 차원에서 기존의 한자 지명을 순한글로 바꾸어 명명한 것이다. 선전지명은 사회주의 혁명의 중심 인물과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김일성 가계와 일제강점기 이후 항일투쟁 혹은 사회주의 혁명에 참여한 인물의 이름을 이용한 인명지명과 이들과 관련된 전설지명, 김일성이 직접 명명하였다는 소위 ‘친체지명’, 현지를 방문한 사건 혹은 날짜를 기념하기 위한 지명, 당의 충성도와 사회주의 사회의 행복감을 표현하는 지명, 역사적인 사건과 전설을 사회주의 이념으로 재해석하여 새롭게 명명한 지명들이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지명 정리사업을 반영한 사전의 편찬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사전은 『고장이름사전』(2000~2002)

이며, 이는 2004년 남북 교류사업으로 편찬된 『조선향토대백과』의 기초가 되었다. 같은 시기에 『조선어학전서』(2002)의 편찬의 일환으로 도별 지명 편람이 편찬되었다. 북한에서 지명 사전 편찬이 2000년 직후에 집중되는 것이 특이하다. 1990년대 중반에는 전자 지명사전 구축이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지명 관련 글과 논문은 언어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문화어학습』과 일반 논문집에 발표되고 있으며 연구 주제는 지명의 사회성과 역사성으로 구분된다. 사회성을 주제로 한 글은 주로 『문화어학습』에서 발표되고 있으며, 일반 논문집에서는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문화어학습』에 발표된 글의 시기별 동향을 보면 1990년대 이전까지는 사회주의 지명의 찬양과 명명 방법론 등의 글이 많이 수록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이의 비율이 감소하고, 지역의 지명 소개와 논문 수준의 글들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 주목된다.

지명 연구 학자들의 주 전공은 언어학으로 판단되며, 지명은 이들에 의해 부차적으로 연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지명을 주제로 한 학위 논문이 배출되면서 지명의 연구 추세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지명연구가 주로 언어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래가 단순히 이두 등을 이용한 언어학적으로만 설명하고 지리학적인 특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분단 이후 만들어진 북한의 사회주의 지명은 국가의 정치 이념이 개입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가는 지명을 만들고, 학자들은 사회주의 지명에 대한 찬양을 통해 주민을 학습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명을 통해 공간을 표상화하고 일상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학습을 무의식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명이 북한의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인다.

본 연구는 북한 일부 자료와 논문, 지명만을 사례로 지명의 관리 정책과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북한의 국토 속에 스며든 사회주의 지명은 이 글에서 언급된 것보다 훨씬 많으며, 남·북한 국토의 이질화를 촉진하고 있다. 북한 국토의 지명에

대해 세밀한 기초 자료가 지금부터라도 구축되어야 하고, 동질성과 이질성을 바탕으로 통일에 대비한 지명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 주

- 1) 본 논문에서 '사회주의 지명' 용어는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는 지명의 전부 요소에서 1945년 이후 행정 구역 개편 과정, 거리 이름이나 산 이름에서 새로운 지명을 명명하거나 혹은 기존의 지명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한 지명'으로 정의하였다.
- 2) 광복이후 1960년대 초까지는 남북한의 언어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는 언어정책에 대체고 이질화를 가져 올 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1933년에 만들어진 「한글맞춤법통일안」이 그대로 수용되고 있었고, 북한에서는 1948년 1월에 「조선어신철자법」이 나오고 1954년 9월에 「조선어철자법」이 제정 발표되기는 하였지만 1945년과의 시간적인 거리도 짧았지만 김일성 교시로 대표되는 북한의 인위적인 언어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이어서 언어라는 것이 의사 소통의 수단이라는 대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1964년 1월 3일의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와 1966년 5월 14일의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 등의 두 교시가 김일성에 의해 직접 발표됨으로써 북한의 언어 정책은 남한과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였다.(국립국어원, 1992)
- 3) 부산 동래 출신인 김두봉은 1908년 보성고보를 졸업하면서 교사로 근무하였고, 한글을 연구하여 광문회(光文會)에서 조선어사전 《말모이》 편찬사업에도 참여하였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후 상하이 [上海]로 망명하여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하였다. 임시정부 산하 임시사료편찬위원회에서 편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에 선출되었으며 1942년 연안[延安]에서 활동하면서 조선독립동맹에 가담하였고, 그 해 7월 주석이 되었다. 1945년 광복 후 북한에서 조선신민당을 조직하여 위원장을 지냈으나 1946년 8월 소련군의 압력으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과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이 창건되자 위원장이 되었다. 이후 김일성 체제에 불만을 품고, 연안과 중진들과 함께 저항하였으며, 1958년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의 결의로 당에서 제명당하였다. 이 후 평남 순안 농장의 노동자로 쫓겨나 중노동을 강요당하며 연명하다가 1960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4) 1951년에 한국전쟁 중 사망한 김책의 이름을 빌어 성진시를 김책시로 개칭하였으나 김일성 일가에 속한 인물은 아니었다.
- 5) 일제강점기 중 왕재산은 왕재산회의가 열린 곳이며, 삼지연은 김일성과 김정숙이 항일혁명을 한 곳으로 선전되고 있다.

- 6) 이들 책 중 필자가 접근한 책은 『고장이름사전』, 『조선지명편람』, 『조선향토대백과』 3종이며 다른 책들은 간접적으로 구한 서지 정보이다.
- 7) 『조선향토대백과』 권1. 「편찬경위」.
- 8) 『조선향토대백과』의 「편찬경위」에 보면 『고장이름사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남한에서 편찬되기 때문에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재편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9) 북한의 학위는 우리의 석사에 해당하는 ‘학사’와 ‘박사’, 그리고 명예칭호인 ‘원사’가 있다. 대학 졸업생들에게는 위를 수여 하지 않고 전문가(인문계통)나 기사(이공계통)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학사’는 각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원과정(3년)을 마치고 논문이 학위학직수여위(委)의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박사’는 박사원과정(2년)을 수료하고 해당분야에서 5~10년간 연구업적을 쌓고 논문이 학위학직수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한편 ‘원사’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특출한 연구성과와 및 후진양성 등 업적을 쌓은 학자에게 수여하는 명예칭호이다.

## 문헌

- 국립국어원, 1992, 북한의 언어정책.
- 권재일, 2012, 북한의 『조선어학전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민수, 1995, 북한의 국어연구, 일조각.
- 김영배, 1994, 북한의 지명, 새국어생활, 4(1), 146-172.
- 북한연구학회, 2012,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2판), 한울.
- 양태진, 2008, 달라진 북한땅 이름 이야기, 백산출판사.
- 이민부·전중환, 2005, ‘추가령’ 지명에 관한 지형학 및 역사지리적 해석, 문화역사지리, 17(1), 47-65.
- 이영택, 1994, 북한의 지명변혁과 지명의 유형, 아세아연구, 91, 41-54.
- 이영희, 2006a, 지명속에 나타난 북한 개성시의 자연경관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1(3), 283-300.
- 이영희, 2006b, 북한 개성특급시 역사 문화지명의 유래와 특성, 한국학연구, 24, 237-268.
- 중앙일보사, 1991, 인물의 고향-북한편.
- 최석주, 2003. 북한의 지명-북한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7, 235-251.
- Lawrence D. and Jani Voulteenaho, 2009, *Critical toponymies: the contested politics of place*



- naming*, FSC.  
[웹페이지]  
국토해양부 브이월드 www.vworld.kr  
평화문제연구소 www.ipa.re.kr
- [북한자료]  
고장이름사전, 전11권, 200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지명편람, 전10권, 2002, 사회과학출판사.  
조선향토대백과, 전20권, 2004, (북)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남)평화문제연구소.
- 김성근, 1978, 조선고장이름에 대한 연구, 학사학위논문(수여대학 미상).  
김영환, 2007, 우리말 지명에 반영된 고구려의 언어유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53(1), 27-30.  
김영환, 2009, 평양의 옛 고구려 고장이름에 대한 언어적 분석,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55(3), 65-70.  
김윤성, 2004,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통하여 본 우리 선조들의 자연 지물들에 대한 이름달기 몇 가지 방법, *문화어학습*, 2004(2), 57-58.  
김일성저작집, 1964, 제18권,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1966, 제20권, 조선노동당출판사.  
렴종률, 1997, 『삼국사기』(35)에 반영된 고구려지명 표기와 고구려어 및 한자음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43(3), 13-18.  
리성남·윤광현, 1999, 『조선지명유래전자사전』의 구성에 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45(8), 91-94.  
리성호, 2009, 고장이름의 주체적 발전에 깃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영도, *문화어학습*, 2009(3), 9-10.  
박명훈, 1991, 우리나라 강하천이름에 대한 연구, 학사학위논문(수여대학 미상).  
박명훈, 2005, 조선지명학, *조선어학전서*, 제35권, 사회과학출판사.  
박명훈, 2005a, 고장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문화어학습*, 2005(1), 41-43.  
박명훈, 2005b, 고장 이름의 주체적 발전을 위한 현명한 영도, *문화어학습*, 2005(3), 8-10.
- 박재수, 1999, *조선언어학에 대한 연구*, 박이정.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어학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원.  
방린봉, 2005, *조선어명칭론*, *조선어학전서*, 제34권, 사회과학출판사.  
서학순, 2004, 우리나라 지명의 단어 조성적 특성, *문화어학습*, 2004(2), 42-43.  
서학순, 2006, 고구려 행정지명에서 표기 수단의 통계적 고찰, *문화어학습*, 2006(3), 43-44.  
서학순, 2008, 리조초 행정구역 단위어 ‘도’의 특수한 사용과 그 단위적 성격, *문화어학습*, 2008(4), 58-59.  
서학순, 2010, 지명의 사회학적 역할, *문화어학습*, 2010(2), 60-61.  
선우용화, 1987, 해방후 우리나라 행정지명의 주체적 발전, 학사학위논문(수여대학 미상).  
송상길, 2005, 우리나라 섬이름의 주요 특성, *문화어학습*, 2005(4), 40-40.  
이성남, 윤광현, 1999, 『조선지명유래전자사전』의 구성에 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45(8), 91-94.  
정순기, 2005, 조선지명변천에 대한 역사문헌학적 연구, *조선어학전서*, 제36권, 사회과학출판사.  
정순기, 2007, 역사문헌에 있는 몇 개 지명에 대한 해석, *조선어문*, 2007(4), 8-10.  
조창선, 1991, 우리나라 산이름에 대한 연구, 학사학위논문(수여대학 미상).  
조창선, 2002, 광복후 조선지명의 주체적 발전, *사회과학원 학보*, 2002(4), 46-48.  
조창선, 2002, 조선지명연구, *조선어학전서*, 제37권, 사회과학출판사.  
채태형, 1990, 15세기 전반기의 도시 명칭 개정에 대하여, *역사과학*, 1990(2), 39-42.  
최완호, 1997, 자연지명의 방언을 두고, *문화어학습*, 1997(3), 59-60.  
홍기문, 1963, 삼국시대의 지명과 조선어의 계통 문제, *조선어학(상세서지 미상)*.
- (접수: 2013.01.31, 수정: 2013.02.17, 채택: 2013.02.21)